

물류 효율화 없이는 국가 경쟁력 키울 수 없어 정부와 업계 가교 역할 충실 수행



장 종식

한국통합물류협회 상근부회장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는 2월 1일 장종식 상근 부회장이 취임함에 따라 1실 2본부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3대 핵심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물류정책에 대한 개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물류비 요소분석 등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물류산업 동향을 비롯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회원에 대한 밀착지원과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동향, 국내외 물류산업 동향정보 등 물류업계의 대응내지는 적응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정보상황실(가칭)을 설치하여 기상정보, 도로정보(사고, 폐쇄 등), 소방 및 기타 안전점검 계획정보 등을 비롯하여 업계현안에 대한 대 정부·국회 활동사항, 기타 협회의 업계를 위한 활동 계획을 실시시간으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협회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고 지속발전성을 보장하는 한편, 업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아크로폴리스』 설립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하고, 컨설팅사업 및 통합물류인증센터운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 안전기획관과 항공안전본부 서울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과 항공철도국장을 역임한 장종식 부회장은 “공직생활 당시 물류업계는 하주기업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여 인프라 측면에서 관심을 더 가졌었다”고 밝히고 “협회 부회장으로 취임

한 후, 물류산업은 산업구조의 기초가 되고 물류 효율화 없이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통합물류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설 조직인 통합물류협회는 새롭게 변화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조직이라는 판단 아래 부회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밝히는 장 부회장.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늘 자유인처럼 살자"는 삶의 철학을 갖고 있는 만큼 3년 정도의 협회 생활을 끝으로 자연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장종식 부회장은 협회 내부 직원의 역량이 최고가 되어야 신뢰받을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먼저 협회 사무국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잣대와 평가제도로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조직개편을 단행, 전략기획실, 회원마케팅본부, 지식서비스 본부로 개편했으며 부설기관으로는 전문위원회와 물류연구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전략기획실은 경영전략팀, 정책기획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하여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협회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했으며, 정부와의 정책협력 체계를 긴밀하기 위해, 대 정부 정책개발과 건의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물류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홍보기능을 활성화하여 협회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장 부회장은 "특히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회원지원본부를 회원마케팅본부로 변경했다"며 "업계를 대상으로 sales를 한다는 개념으로 변화와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능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통합물류협회는 회원사비로 절반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이외에 정부 위탁사업과 교

육사업을 진행하여 재정을 충당해 가고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 부회장은 "협회 회비는 상징적인 의미만 갖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추진해 회비 의존도를 5% 이하로 낮추는 한편,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수익창출, 협회 자체의 수익 사업 수행, 국가정책 및 일반산업정책 용역사업을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류 콘텐츠를 제시하여 정부로부터 많은 사업을 끌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 업계가 필요로 하고 인재양성, 수익창출을 위한 명품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부 관련 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하고 반드시 흡수, 통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국가 및 물류업계 전체가 원하는 모습으로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식 부회장은 일 처리에 있어 순발력이 있고 업무 처리가 빠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사보다는 아래사람들과 끈끈한 인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공무원시절에는 "나"를 알리는 것을 꺼려했지만 협회 부회장으로서는 현재 가진 모든 인간관계를 활용하고 협회를 알리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조정안과 단계적 접근법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나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류 효율화 없이는 국가 경쟁력 키울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궁극적으로 물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장종식 부회장의 행보를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